

## 에스겔14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러므로 원수 품에 있는 많은 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성령의 칼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병기들을 다 사용하여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여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세상 신보다 더 크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들로 향하여 두고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위에 흩어 버리리라.

너희의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그 성읍들이 황폐케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폐허가 될 것이요, 너희 우상들이 부서지고 끝날 것이며 너희 형상들

이 잘려질 것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도 폐하여지리라.

살해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복습을 해 본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렸습니다. 반역을 잘한다. 또 그래서 그 반역하는 민족에게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뻔뻔스럽다.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그 에스겔을 이마를 부딪돌 같이 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뻔뻔한 말을 해도 물러서지 않도록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4장에 가서는 이방민족들이 공격해서 완전히 포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으로 앞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5장에 가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 닥칠 기근, 전염병, 또 이방민족이 칼같이 쳐들어 올 것, 그들의 손에 죽임 당하고 또는 남은 사람들은 사로잡혀가서 종이 될 것들,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 질 것들, 이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솟구쳐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죠. 인간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시편 50편을 봐도 악인들이 하나님말씀이 오면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고 등 뒤로 돌려 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다 지나가죠. 안 들은 걸로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줍니다. 이게,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또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뭔가하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하나님이 저주를 줬어요.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누구에게 다 초이스(choice)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인간들에게 양심을 줬어요. 양심을 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 받으므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에 응답을

한 거죠. 이제는 양심이 선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선한,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피가 흘러 들어가서 그 더러운 양심, 부패된 양심을 깨끗케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들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지만 악한 양심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압니다. 이 세상에 살인자들도 무엇이 잘못된 것 인줄 압니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 주셨죠. 이제 6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산을 바라보라.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구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아마 그 때 유대인들이 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양 이에요. 산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다보니까 2계명을 빼야 됩니다. 2계명을 빼고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걸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십계명을 만들어 냈는데 2계명이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예요. 이것만 알아도 잘못된 것을 알죠.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요한계시록 시디를 줬는데 그 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분이 왜 카톨릭을 욕하느냐고 그러더라요. 욕하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만 끝까지 들어 보겠다고 그러더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모르겠습시다만 그 분도 카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옮기신 분이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깨달아야 되는데 카톨릭은 완전히 바벨론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벨론 종교예요. 목주보세요, 목주. 목주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바벨론 이에요, 전부 바벨론 이에요. 이방종교들은 다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다 둔갑을 한 거죠. 영어가 둔갑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예언하라.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칼을 내가 가져와서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라. 거기다 산당들을 다 지어

놓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할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면서 한 번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 강들과 골짜기들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이게 뭘까? 이것은 전체를 따져보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방민족들, 전역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방민족에게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죠. 거기서 열왕기하에 보면 힌놈의 골짜기가 나와요. 힌놈의 골짜기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긴 장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율법을 낭독하고 개혁을 했죠. 그 때 한 번. 힌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에게로 모으더라.

왕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함께 갔으며, 왕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 주더라.

왕이 기둥 옆에서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힐키야와 차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재를 벳엘로 옮겼더라.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키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동성연애자들)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또 그가 유다의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으며, 제사장들이 분향했던 산당들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혔고 또 성읍의 통치자 여호수아의 문의 입구에 있던 문들의 산당들을 헐었으니 그 산당들은 성읍 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러나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그가 힌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힌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단숭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힌놈의 골짜기, 이게 바로 힌놈의 골짜깁니다. 저주받은 곳이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칼을 너희에게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죠. 이 결국은 앞으로 환란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하나의 최종적인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 뭐 안 이루어졌네? 그러죠. 그러나 그 때 다 이루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우상숭배 흔적을 다 쓸어 내고 거룩한 산들로서 모습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

서 진짜 예루살렘을 만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도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편 87편 1절로 3절을 보면 은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시편 87편1~3절 보겠습니다.

그가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 하시는 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 되는 도다. 셀라.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우상이 다 멸해 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산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하나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여러분 22장이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은혜 복음이 오니까 23장에 주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죠. 이게 은혜 시대 우리 시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 하시는 도다. 이렇게 은혜 시대에 목자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죠.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

국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성경에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전부, 시편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물론 콰이어타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편 속에서 위로 받을 수 있고 시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이것이 앞으로 될 예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중 삼중이죠. 예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고요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되요. 제가 저도 성경 읽기 표대로 저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쪽 읽어 보니까 또 눈에 띄어요. 아 이렇게 말씀 하셨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내가 강의 했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깊은 샘 같아요. 퍼도, 퍼도 마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말라 버리죠.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가 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병든 세상을 멸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심판이지만 환란 때 가면은 세상에 심판으로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 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우상, 탐심이 우상숭배다.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탐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청지기 노릇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누가 지금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은 없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 탐심, 탐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돈 욕심도 있고요, 음식 욕심도 있고요, 성적인 욕심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5 감각에 들어오는 그것을 못 참고 그냥 남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에스겔 6장4절에 가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형상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호흡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들을 던져버리면 그것들이 다 떠나가겠죠. 그냥, 그런데 그것들이 신이라고 섬겼잖아요. 그 우상들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우상 섬긴 사람들이 던져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든 우상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에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거기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거든요 기억이 안나지만 역사적으로 나오는 애긴데 아브라함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버지가 밖에 나간 사이에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러잖아요. 망치를 가지고, 제일 큰 우상 하나 남겨두고 우상의 손에다 망치를 딱 들러 놓았다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돈이 다 없어지고 화가 난 아버지가 누가 이랬냐고 그러니까 저놈이 저랬다고 말이지 저놈이 그랬다고, 어떻게 저놈이 생명도 없는데 그럴 수 있냐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왜 섬기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을 그 혈통에서 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미워하는 사람들 지금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는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에 갔을 때 설교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 그리스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비너스상이 있고 아폴로상이 있고 그것 가지고 학교 가는 사람들 미술시간에 덧상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그랬어요. 비너스도 그려보고 아폴로상도 그려보고 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구요.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떡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 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예수님이죠)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 비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철학이 들어가면 그래요. 철학이 들어가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죠. 자 다시 에스겔서 가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위에 흩어 버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죽여 버리고 그 시체들을 우상들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뼈다귀들을 제단 주위에 흩어버린다. 그러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

마나 화가 나셨으면 6절 보니까

너희의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그 성읍들이 황폐케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폐허가 될 것이요. 너희 우상들이 부서지고 끝날 것이며 너희 형상들이 잘려질 것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도 폐하여지리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참 희한해요, 똑같은 나뭇가지고 어떤 것은 땀감으로 쓰고 어떤 것은 우상으로 쓰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굴러다니는 돌 가지고 말이죠, 그것 가지고 다듬어서 우상으로 섬기니 인간이 무지한 겁니까.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참 불교신자들을 보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거. 죽은 사람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얼굴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그런 것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우상을 섬기거든요. 뭔가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나와서도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앞에 십자가만 붙여놔요. 그러니까 불교신자들이 흥내 내요, 불교는 산에서 기어 내려와요 땅으로, 불당 보세요. 여러분은 불당 안 들어가 봤죠? 나는 사진으로 봤어요. 다른 것은 똑 같아요. 의자 이렇게 놓고 말이죠, 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 하더라 구요. 똑 같더라구요 교회와 형식이, 거기도 뭐 불경주일학교도 있고 불경 기도회도 있고, 대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도, 지나가다 보세요, 써놓은 것 보면, 그대로 흥내 내는 거예요. 교회나 불교나 별 다름이 없어요. 스님들의 설교나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름이 없더라고 보니까, 참 이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가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왜 불교로 갑니까? 기독교가 부패되니까 불교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낫거든 오히려, 여기 강단은 자기는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멋지게 살면서 버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 버리고 나와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죠. 눈이 파란 사람들이, 금발머리 백인들이 거기 가서 도를 닦고 하는 거예요. 왜 희피족들이 생겼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가 부패하니까 에이 이놈의 나라 소망도 없다, 그래가지고 에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갈보리 채플의 잭 스미스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전도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도 20년 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한 열 닷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헌팅톤 비치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그만 할랍니다. 나 이제 낙시질 할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피족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보리 채플에 사람들은 거의 다 마약환자들 출신 이에요. 지금 거 하베스트 쿠르세이드(Harvest Crusade)gksms 그 목사도 마약환자 출신입니다.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십자가 붙이지 않고 불상 붙여놓은 거랑 똑 같은 말 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머리가 다고, 다고 자꾸 달라고만 한다고 그러다가 다고 다고만 하다가 그냥 사람 핏줄로 들어가죠, 나중에. 피를 빨아 먹다 안 되니까 나중에 피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기서. 똑 같은 거예요. 거머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이스타롯 여신, 섬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우리 한 번 재판관기 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사사기 보게 되면 참 이방신 섬기다가 그러다가 막 뚜드려 맞는 것 밖에 없어요.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또 그냥 회개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러죠.

## 2장 13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 들 주위의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더 이상 당해 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면 칼이 와요.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한국도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물질을 섬긴단 말이죠. 칼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그걸 모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단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리아 숭배하는 것 있

죠? 카톨릭에 그게 아스타롯이예요, 그게. 하늘의 여왕입니다. 여신 숭배죠 그게 바로, 하늘의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대로 답습한 거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교도 신앙이죠. 다 폐해질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살해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딱 하나죠. 내가 주 인줄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인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다. 이거 내가 얘기한 거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얘기 한 건데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그런 것도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줬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줬죠. 어떻게 했느냐. 영, 혼, 육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혼을 통과하지 않고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영을 통과해서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고 영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녀가 얘기 낳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오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다 그랬죠. 어떻게 주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만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 인줄 알리라. 언제 알게 됩니까? 대 환란 때에 알게 되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뭐야?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얘기해도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번 주일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성경에 깜짝 놀랐어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뭐 착하게 사는 게 아니 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읽는 말씀인데 그게 세마포를 준비하는 제목 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일엔 무슨 말씀을 전할 까 고민하는데 어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상을 다 이 땅으로부터 멸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주신 것을 예수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선 먼저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지체들이 깨끗해져서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같은 지체들이 되어서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 깨끗한 주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지체가 붙어서 그래서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이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혼들이 깨끗해 져서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므로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자가 들어 와도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말씀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서 모두가 정결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항상 임재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